

우리 모임에선

“침체됐던 전력인 불심 다시 켜자”

발전회사 등 분사이후 첫 연합법회
17개지회 150명 1080배 · 참선 정진
회장단 회의 정례화...년 4회 합동법회



전력인 불자연합회가 20-21일 은해사에서 지난 4월 분사 이후 첫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더욱 신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력인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원력을 주십시오.” 150여 전력인 불자들은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이렇게 발원하며 더욱 신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4월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사(分社)된 신행 활동의 위기를 맞았던 전력인 불자들이 20-21일 이곳에서 분사 이후 처음으로 연합법회를 가졌다.
연합법회는 분사반야회, 전력연구원반야회, 월성원자력반야회, 영광원자력 선우회, 울진원자력 문수회 등 17개 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20일 오후 7시 입제식을 시작으로 1080배, 참선정진에 이어 21일 연합법회로 진행됐다.
이중 부모의 지도와 격려를 받으며 1080배를 해내는 회원 자녀들과 참선삼매에 빠진 채 온 밤을 꼬박 보낸 회원 부부들의 모습은, 전력인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은해사 뒤편에 있는 팔공산 등산로를 걸으며 전력인불자연합회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는 진지함을 찾을 수 있었다.
연합법회는 참선실수, 법문, 각 사업장별 상견례, 월성·울진 원자력발전소의 모범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월성원자력 반야회는 지역 전통사찰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문화재 해설사’라는 독특한 신행 활동을 발표해 주목됐다. 삼천포화력 반야회와 울진원자력 문수회는 지역 사찰인 운흥사와 불영사의 연계한 신행 사례도 전력인 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연합법회는 각 지회에서 순차적으로 준비한다. 또한 전국 17개 지회 회장단 회의를 격려로 시행할 방침을 세웠고, 내년 5월 초파일을 맞아 ‘꼬마 연등’도 제작한다.
전력인 불자들은 연합법회 회향식과 함께 경비의 일부를 모아 북한 사리원금강국수공장에 후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서울 남부서 경불회 7일 창립

회장 이태희씨...청소년·노인복지 주력



서울 남부경찰서 경찰불자회(회장 이태희·사진)가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남부서 3층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도 법사 원욱스님(관악산 호암사 주지)의 집전으로 진행되는 이날 창립법회에는 남부서 150여 경찰 불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 등 4명의 경찰 불자들이 경불회 창립을 서원한 지 1년만에 일관된 성과다. 이를 위해 이 회장 등은 등산, 축구대회와 같은 남부서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동료들의 종교를 파악하고 경불회 창립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봉사하는 경불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노인 복지에 원력을 쏟고 있는 원욱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이 회장은 “정기 법회와 교리 공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진 다음, 남부서에 경승실을 설치하는 일과 지역 사회봉사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안성경찰서 유마회는 30일 ‘경승실 개원 및 불상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제 2도약을 서원했다. 유마회 김택영 회장은 “회원 모두 경찰서 안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다양한 신행 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마회는 99년 4월 결성됐지만, 경승실이 비좁고 부처님 또한 봉안하지 못해 원활한 신행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오종욱 기자



교사불자련은 20-21일 간사에서 운영위원 연합법회를 열고 청소년 포교지 발간 등 내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청소년 포교지 ‘좋은 친구’ 재발간

교사불자련 임원법회

좋은친구> 4집을 발행키로 했다. 1998년 가을호로 시작한 <좋은친구>는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포교지로 활용되면서 호응을 얻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2000년 여름호를 끝으로 중단됐다. 출판비용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회장 판매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마련할 방침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교사불자련은 2002년 1월 5-7일 통도사에서 겨울 수련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포교지 <

전국교사불자련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0-21일 계룡산 간사에서 운영위원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연합법회에 동참한 40여 운영위원들은 108배와 참선, 아침예불로 신심을 다지고,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2002년도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일 간사에서 운영위원 연합법회를 열고 청소년 포교지 발간 등 내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부산철도 정비창 불자회 탄생

회장 최비석씨



철도청에 또 하나의 법당이 밝혀졌다.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자회(회장 최비석·사진)가 27일 정비창 내 복지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해홍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부산불교교육대학 이하우 학장 등 3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70여 회원들은 철도인 불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불자회는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기초 교육 등의 신행 활동 외에도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불자회는 회원 중에서 전거나 기계를 다루는 기능인이 많은 점에 주목, 지역 사회의 복지과외의 시설 관리 봉사에 원력을 쏟을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불기협 와우정사서 연수교육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직대 이재위)는 20-21일 열반종 총본산 경기도 용인 와우정사에서 가을 정기연수교육(사진)을 실시했다. 30여 회원들이 동참한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언론과 기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한겨레신문 손석춘 여론매체부장의 특강 등이 마련됐다.

게시판

알림

- ▲성직자 친선 축구대회=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에서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성직자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기는 스님, 목사, 신부팀의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02)735-5864
▲봉선사 홈페이지 오픈=조계종 25교구 분사 봉선사가 홈페이지를 오픈, 사이버 포교에 나섰다. 봉선사와

모집

▲노인학교 강사=안양노인복지센

- 터는 해운학교 강사를 모집한다. 해운학교는 노인들의 학습, 취미, 여가, 건강 등을 돕는 노인학교. (031)455-0551
▲중고가구 후원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문화센터에서 이용할 TV, 복사기, 파티션, 소파, 냉장고 등의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02)385-1351
▲무료 영화 상영회=영주소회복지관은 11월 1일 복지관 강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무료 상영회를 갖는다. 영화는 ‘마이티’. (054)633-6419

현대불교 THE HYUNDAI BUDDHIST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백해 끼고 뒤돌림 현상 전국 확산
“방염 방충 작업 오히려 해산” 여론
문화재청 ‘방염방충’의혹
문화재청은 방염방충을 위해 ‘썩어가는 문화재’를 방염방충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방염방충은 오히려 문화재를 썩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방염방충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방염방충은 오히려 문화재를 썩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처님이 계셨을때 시멘트가 있었다면?
시멘트
시멘트법당의 대명사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90-29
대표전화:(02)494-4890-1

설계에서←시공까지
사업안내 : 콘크리트법당, 요사채, 납골당